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현장 ④ - 불광산사(佛光山寺)

대만불교를 이끈 원동력은 최초·최초·최초...

대만불교의 대표격인 불광산사는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성운 대사에 의해 창건됐다.

성운 대사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펼치며,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는 4가지 서원으로 산사를 세웠다. 종교학자들은 오늘의 불광산사의 진면목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에서 불교문화교류단은 4월 4일, 5일과 6일 가오슝의 불광산사, 남평별원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2일 타이페이의 불광산사 법당을 둘러보고 활발한 포교 현장을 체험했다.

포교는 시대를 앞서야 성공한다

대만 남부 가오슝성(高雄縣) 다슈상(大樹鄉)에 소재하고 있는 불광산사는 문화와의 접목을 통한 설법과 포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불교의 다른 사찰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불광산사는 건축, 유물, 출판, 방송,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

특히 대만 최초로 라디오와 TV를 이용한 전파포교를 시작해 1998년 1월에는 불광위성TV(佛光衛星TV)를 개국했다. 사찰 안에 방송국을 설립한 것이다.

이 밖에도 최초의 불교유치원, 최초의 청년회 조직, 최초의 셔틀버스 등 포교 분야에서 시대를 선도했다. 현재 불광산사는 고아원과 양로원, 무료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포교, 교학연구, 출판에 탁월

또한 불광산사는 불교학 연구분야에서도 불학원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남북전(南北傳)의 불교를 구분없이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돌아가자', '현교와 밀교의 종파를 융합하자' 등을 이념으로 세워져 불교학의 학제간 교류 풍토를 장려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방송 신문 미디어 포교 앞장

찬불가 대회 등 문화포교 새지평

'세계 현·밀 불학회', '선학학술대회' 등과 같이 불교학자들에게 국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적 문장부호를 사용한 <불광대장경>, 세계 불교학계의 우수 도서로 추천받은 <불광대사전>, 30여 년 간의 중국·대만의 선학 연구 논문 목록을 정리한 <선학 논저 목록> 등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다.

사부대중의 평등의식이 원동력

불광산사 불학원은 출·재가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한다는게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의 강원이 보편적으로 경·론을 공부한다면 불광산사 불학원은 사회



불광산사의 회랑을 가시장을 수지한 재가불자들이 나란히 걷고 있다. 뒤로 보이는 벽면에는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명호가 빼곡하다.

전반적인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지도자 배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불광산사는 새벽예불을 비롯해 발우공양 등 대부분의 불교 생활의식을 출·재가가 함께 한다. 사부대중에 대한 평등이념과 현대생활에 맞춘 포교활동의 일환이다.

이 중 불광청년회의 활동은 놀랍다. 불광청년회는 단순한 재가단체가 아닌 독서회, 아동주말학교, 흥법단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포교와 교육 전반에서의 핵심이다. 성운 스님이 초기 사찰 재정이 어



문화교육부장 진봉소님이 불광산사 도감 혜전 스님에게 교류의 성과를 전달하고 있다.

려운 시기에서 사람을 찾아온 청년들을 위해 농작물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불광산사는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 때부터 열불회, 청년회, 아동주말학교, 흥법단 등을 통해 수계와 교육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각지에 200여 개의 분원을 세우고 미술관과 도서관, 출판사, 서점, 운수(雲水)의 원, 2개의 중학교와 불광대·남화대·서래대 등 3개의 대학, 불학원(대학원 과정) 등을 창설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불사에서도 포교를 고려

불광산사는 불교 성지로서의 사찰의 개념을 조율해 불교문화원형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불교문화 테마파크로 성장 중이다.

불광산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전체가 하나의 사찰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에만 주요 건물이 20여 채가 넘는다.

불광산 내부를 순회하는 전기 자동차가 운행될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

이 모든 것들은 신도들의 십시일반의 원력으로 지어진 것으로 불광사 곳곳에는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이름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내부에 각종 문화시설 갖춰

불광산 내부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갖춰져 있다.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짓기 보다는 불당의 지하공간을

6월 불타 기념관 완공

불사이면에 포교 염두

활용해 보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불교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불교미술관은 불교와 관련된 과거의 유물은 물론, 현대 불교 미술작품까지 전시해 불교 미술을 장려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미술관은 대만 불광산사 본원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 분원에도 설립됐다. 각 미술관에서는 소장품 상호 교환 전시회를 개최한다. 불교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차·도자기 문화 등 전통문화의 교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 밖에 티베트 살가차당조주(薩迦迦塘楚秋) 양극랍재(襄極拉齋)사에 모셔졌던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셔온 것을 기념하는 불타기념관이 6월 경 문을 열 예정이다.

성운 스님은...

성운 스님은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에서 태어나 12세 때 남경 의흥 서하산 대각사에서 지개상인(志開上人)을 은사로 출가했다. 일찍이 서하학원에서 공부하고 임제종 48대의 법맥을 이어 받았다.

그 뒤 젊은 나이에 백담 초등학교 교장, <노동월간> 주간, 남경 화장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49년 대만에 와서 <인생잡지>, <금일불교>, <각세> 등의 정기간행물을 주간하고 1952년에는 의란 뇌음사에서 열불회, 청년회, 아동주말학교, 흥법단 등을 조직했다.

1967년에는 대만 고웅현 대수향에 불광산을 창건하여 불교교육과 문화, 자선, 흥법사업에 매진했다.

그동안 세계 각지에 200여 개의 사원을 건립했으며, 100여 개의 국제불광협회를 통해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는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야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제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